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4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91)	봉헌 (215)	성체 (498)	파견 (92)
---------	---------	----------	----------	---------

### 미사 전례 예절

- 미사 중에는 가급적 합장을 하십시오.  
 양손 바닥이 마주 닿게 하고 손끝의 위치는 자기 어깨 높이에 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를 누릅니다.  
 이때 손끝이 정면이나 바닥을 찌르듯 한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내 마음을 향한다는 의미로 위로 향하게 합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때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 때 엄지로 이마, 입술, 가슴에 대고 작은 성호를 그으십시오.
- \* 이마는 머리의 중심으로 복음 말씀을 잘 깨닫고,
- \* 입으로는 깨달은 바를 전파 또는 고백 하며,
- \*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생활 속에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시  
 그리고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서나 매일미사 책을 보지 말고 합장하고 들어야** 합니다.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25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2/2	이 그레이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12/9	유 요한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2/16	이 마틸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황 스텔라,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50	\$	\$1,02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1	손 아놀드/ 손 쟈마	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2/15	박 벨라렛다/ 정 루시아	1/19	김 요아킴/ 고 안나
12/22	이 요한/ 이 마틸다	1/2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12/29	유 요한/ 유 마리아	2/2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섬'. 주님의 뜻이자 선물

-박승희 리더아 | 前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그리움 또는 설렘입니다. 성탄을 생각하면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공소가 있는 시골 마을에서도 대림절이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 성극을 준비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곤 했습니다. 먼 기억 속의 성극을 소환한건 순전히 외가 방계 형제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6년 전부터 11월 마지막 토요일이면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첫 모임이 이태원에서 있었는데, 저는 연락도 없이 수녀원에 들어온 지 스무 해가 넘어 처음 보는 자리라 서먹서먹 했습니다. 다들 저보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오랜만이라 선뜻 말을 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어색함을 떨치고자 초등학교 때 본 성극 중에 대사로 부른 노래가 아직 생각난다고 했더니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솔로몬 역할을 했었는데”, “난 아기”, “난 가짜 엄마”, “난 진짜 엄마”, “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도 나도!!” 여기저기서 말문을 열더니 순식간에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하느님보다 엄마가 더 무섭다”는 동생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자유를 갖고 싶다”는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세월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공통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형제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요. 명절에 자식들이 다니러 가면 성체를 영하는지 영하지 않는지 눈여겨 보신다는 친척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801년 이 전부터 교우촌을 형성해 살아온 그곳은 현재 노인들만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공소 회장이라는 직분을 봉사했기에 길 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회장님’하고 부르면 뒤를 돌아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부유했고, 다들 신앙만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걸 보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4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 합창단 성탄 공연 (12/14)

어린이 합창단, 마리아치의 공연이 12월 14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봉사자를 위한 저녁식사 안내

12/23(일) 봉사자를 위한 식사가 오후 5:00에 있습니다.

의무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8일

12/8(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이 날은 의무 대축일로, 꼭 미사에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미사 및 구유예절 12월 24일

5:30pm 구유예절.

6:00pm 저녁미사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월 25일

9:30am 한/영 미사

면 역시 신앙은 최고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냉담한지 45년 만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외숙부를 봐도 그렇고, 누가 하느님을 떠나 살더라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꼭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순절이면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교우들이 모여 성모신공을 바친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방학이라 피를 부리고 싶어도 면제되지 않았던 기도 생활, 새벽이면 조과를, 저녁이면 만과를 온 가족이 함께 바쳤던 시간이 향수로 남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판공을 준비하고 공소에 모여 축제를 준비하던 그때의 설렘으로 돌아가 성탄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성수와 성유는 어떻게 만드나요?

성수는 미사 때 또는 미사 외에 필요할 때마다 사제나 부제가 축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수를 많이 만들어 장기 보관할 때는 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넣기도 합니다. 성수와 혼동하기 쉬운 세례수는 부활성야 미사 중의 세례예식 때나 세례성사 전에 사제는 세례수 축복기도문을 바치며 세례수를 축복합니다. 성유는 일 년에 한 번 매년 부활 대축일을 앞둔 성목요일에 주교와 사제단이 모여 봉헌하는 성유축성미사 때 축성합니다. 미사 중에 주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름을 축성합니다. 즉 예비신자 성유, 크리스마 성유, 병자 성유입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